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 안는가’

2025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관 개관...성공 개최 시동

광주비엔날레재단, 29일까지 광주신세계 1층서 운영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 안는가’(You, the World. How Design Embraces Humanity)라는 타이틀로 오는 30일 개막할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관 제막식이 열렸다.

(재)광주비엔날레는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D-30을 맞이해 지난 1일 광주 신세계계백화점 1층에서 홍보관 제막식을 갖고, 인간

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디자인의 본질에 다가갈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전시를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이날 홍보관 제막식에는 윤범모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최수신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을 비롯해 광주비엔날레 이사회, 광주비엔날레 후원사인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주영하 대표이사와 광주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범모 대표이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광주비엔날레’ 전시 주제 이미지(EIP, Event Identity Programs)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조형물 제막식, 전시 제목 채색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돼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인 ‘포용디자인’처럼 모든 것을 넓게 받아들이는 ‘포용지덕’(包容之德) 네 글자를 보자기로 감싼 형상의 조형물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전까지 자리해 포토존이자 온라인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된다.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관은 공식 개막 전날인 8월 29일까지 한 달 간 운영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재)광주비엔날레는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D-30을 맞이해 지난 1일 광주 신세계계백화점 1층에서 홍보관 제막식을 가졌다.

여수시, ‘이야포·두룩여 미군폭격사건’ 추모제

추모제 전 과정 영상 촬영...유가족 등과 아픔 나눠

여수시는 최근 안도 기러기 캠퍼장과 이야포 평화공원에서 ‘남편 이야포·두룩여미군폭격사건 제75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추모제는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비극적인 민간인 피해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여수시와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위령사업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이야포·두룩여 미군폭격사건’은 1950년 8월 3일 제주도도로 향하던 피난선이 남면 안도리 인근 해상에서 미군기의 기총사격을 받아 승선자 약 250명 중 다수가 희생된 사건이다. 같은해 8월 9일에는 두룩여 해상에서 상업에 종사하던 어민들이 미군기의 사격을 받아 약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는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유가족과 시민들을 위해 추모제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 비대면 추모 참여도 가능하도록 했다. 정기영 시장은 “7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을 가슴에 묻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여수시는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진실 규명과 역사적 복원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 보호연장아동 자립 지원

지역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은 최근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지원센터) 내 보호연장아동의 자립준비도 향상을 위한 보호연장아동 자립지원 강의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호연장아동 자립에 대한 동기 부여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아동복지시설과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진로탐색, 자산관리 주제로 총 2회기의 교육을 진행했다.

진로탐색 교육은 진로상담도구를 통한 보호연



장아동의 진로목표를 구체화하고 향후 진로분야 취업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했으며, 자산관리 교육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경제관리 필요성, 수입, 지출내역 작성, 나의 지출 성향 파악’으로 이뤄졌다. 보호연장아동은 18세 자립을 직전에 둔 아동이 시설에서의 보호를 연장을 신청한 아동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전남 RISE센터는 최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남RISE 동반성장 프로젝트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전남 RISE센터, 대학·시군과 ‘동반성장’ 맞손

생활밀착형 문제 해결·지역 균형발전 실현 등 논의

전남 RISE센터는 권역별 대학과 시·군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일환으로 ‘전남RISE 동반성장 프로젝트 전략회의’를 지난 1일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군 동반성장 프로젝트는 대학이 없는 시·군을 포함해 전남 22개 시·군 지역 주민과 대학이 참여하는 리빙랩 기반의 생활 밀착형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 실현 등이 목표다.

회의에서는 목포대·순천대·동신대, 무안군·순천시·나주시, RISE센터 등 12명이 참석해 동반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과 시·군 대학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권역별 시·군 동반성장 추진 방향과 지자체 협력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했으며, 대학·지자체 등 권역별 동반성장 협의회 구성·운영과 세부 실행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남 RISE센터는 이번 첫 회의(Kick-off)를 시작으로 권역별 시·군 연계, 사업 모니터링, 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만들어지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PEOPLE

2025년 8월 4일 월요일



대한양계협회 나주시지부

공직자에 삼계탕 400마리 후원

대한양계협회 나주시지부가 폭우와 폭염 등 재난 대응에 나선 공무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삼계탕 400마리를 후원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구내식당에서 ‘재난 극복 공직자 위로 삼계탕 나눔행사’를 열었다.

김원태 지부장은 “최근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의 선제 대응과 공무원들의 민첩한 현장 조치로 피해가 크지 않았다”며 “시민을 대표해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윤병태 시장은 “공직자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며 “뜨거운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린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대한양계협회 나주시지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주청 기동순찰대

체감안전도 향상 야간 합동순찰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가 민생범죄 사전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기동순찰대는 최근 서구 상무1동자율방범순찰대와 함께 오월어린이공원 일대에서 공원 이용자 대상 기초질서 확립 야간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상무1동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고 교통질서, 생활질서, 서민경제 질서 등 지역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가시적인 위력 순찰, 기초질서 위반 예방 홍보를 비롯해 주택가 주변 등 우범지대에 점검을 통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광주청 기동순찰대 관계자는 “기초질서 확립 홍보 활동과 더불어 범죄로부터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협력단체와 협업을 통해 더 안전한 광주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i1404@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걸음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

232-4953.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양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지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운세 (음력 6월 11일)

48년생 찾는 것은 가까운데 있다
60년생 명예와 지위가 오르고 거래 성사된다
72년생 모임 참석은 피하라
84년생 지인의 감언이설에 속지 마라
96년생 미래를 위해 한가지 일에 열중하라

51년생 일이 생기기 전에 힘쓰라
63년생 청탁으로 곤경에 처할 수 있다
75년생 주변에 변화가 생긴다
87년생 충고나 도움말을 받아들이라
99년생 사랑 고백하면 뜻 이룰 때

54년생 어려울수록 진실한 연행이 필요
66년생 행운은 귀하게게 있다
78년생 나이드시 분이 말하면 잘 들어라
90년생 소개 받은 일은 잘 풀린다

57년생 일에있어 예상외의 수입이 생긴다
69년생 문서로 출거워하는 날
81년생 배우자 어디에 있을까 고민
93년생 오해가 생겨 관계 서약해지기 쉽다

49년생 시비를 멀리하고 충돌을 피하라
61년생 돈 관계로 피곤하나 해결 될 것이다
73년생 노력을 닦은 결실이 맺어진다
85년생 말로 뜻을 이루기 어렵다
97년생 중도에 포기하지 마라

52년생 귀하가 먼저 술선수범해야 한다
64년생 협력자가 생기고 기쁜 소식 들려온다
76년생 적극성을 띤 선택을 하라
88년생 다소의 고초를 당할 수 있다

55년생 발버둥쳐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67년생 꿈같은 시기를 만나다
79년생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91년생 적나라하지 않으면 남매를 보리라

58년생 금전 문제는 당분간 어려워 진다
70년생 연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82년생 모든 문제는 소리대로 해결된다
94년생 돈소문으로 심신이 고달프다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50년생 배신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62년생 이익이 증대되어 화색이 만만 하리라
74년생 일거리가 많이 생기고 수입이 생긴다
86년생 주머니가 배로 늘어났다
98년생 다른 것에 한눈팔지 마라

53년생 뜻하지 않은 금전이 생길 것
65년생 모든 일이 잘 풀려간다
77년생 일의 변화를 가져 올 사건이 생긴다
89년생 애정운은 좋다

56년생 귀하 것은 그대로 있다
68년생 옛 일이 괴롭히나 큰일은 아니다
80년생 귀하가 먼저 술선수범해야 한다
92년생 공부해 해아하는데 돈 구름만 생각

59년생 미련이 있으니 금전 손실이 많다
71년생 새로운 변화 계획 추진하라
83년생 기대했던 계획 허사될 우려 있는 날
95년생 선남선녀가 만나니 사랑이 시작